

특특뉴스

광주은행, '써머 환전 페스티벌'

광주은행이 오는 9월 30일까지 '2022 써머 환전 페스티벌'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 유럽 유로화를 70%, 중국 위안화를 30% 환율 우대하며, 미화로 환산 시 100달러부터 1,000달러까지 신청 가능하다. 여기에 추가로 '여행스케치 외화저축V' 신규 및 기가입고객에게는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 유럽 유로화를 80%, 중국 위안화를 40% 환율 우대한다.

또한 이벤트 기간 동안 미화환산 500달러 이상 환전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해 GS칼텍스 모바일 주유 상품권을 오는 10월 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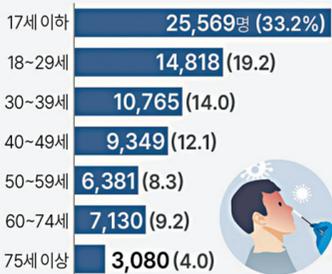
환전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스마트뱅킹을 통해 신청 후 전 영업점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그래픽 경제

코로나19 재감염자 연령대별 현황

2020년 1월~2022년 7월 9일 집계, () : 비중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의힘 백종현 의원 | 연합뉴스

재감염 3명 중 1명은 소아·청소년

질병관리청과 국민의힘 백종현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부터 지난 9일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재감염된 사람은 총 7만7,092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17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33.2%인 2만5,569명이었다.

손실보전금 사기문자 기승...소상공인 '분통'

링크·전화 유도 금융정보 유출 노년층 대리접수 명목 스미싱도 "피해 즉시 지급정지·환급 신청을"

자영업자 이 모씨(58)는 지난 22일 오전 금년도 추경을 통한 손실보상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지급 확정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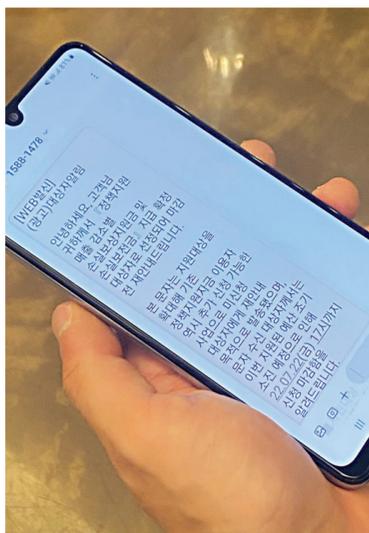
"마감 전 재안내드린다는 문구와 함께 예산조기 소진 예정으로 인해 신청 마감일도 당일 오후 7시까지라는 문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워낙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 소식이 많으니 일일이 찾아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 혹시 내가 모르고 넘어갔나 싶어 마음만 급했죠. 허둥대는 모습을 보던 아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프리랜서 일을 하는 딸아이에게 전화를 해 물어보고 난 후에야 사기 문자 메시지인 것을 알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오는 29일을 마지막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 기관을

사칭한 사기문자와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리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최근 급격히 오른 휘발유 값에 걱정이 앞섰는데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9년여 동안 몰았던 개인택시 일을 그만둬야 할 지 고민하던 중 스미싱 문자를 받고 울분을 금치 못했다는 손 모씨(62)는 "1, 2차 보증금은 받았는데, 이번에 정부가 기준을 변경하면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택시는 내 노력과 관계없이 어느 시간대에 운영하느냐, 손님이 많이 잡히느냐 안잡히느냐 등 운에 따라 매출 차이가 큰데 분기별 기준으로 영업 손실을 반영한다니 사실상 주고 싶지 않다는 소리"라며 "안그래도 마음이 착잡하던 와중에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 문자를 받고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 싶었는데 동료 기사들이 스미싱 문자라는 것을 알려줘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안그래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돼 화가나 죽겠는데, 이런 문자를 3일에 걸쳐 한 번 꼴로 받고 있으니 '배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는 꼴이 딱 지금이 아닌가 싶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손실지원 일정에



한 소상공인이 자신에게 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관련 스미싱 문자를 보여주고 있다.

맞춰 관련 스미싱 문자가 자주 발송된다고 토로했다. 내용 또한 정부기관에서 보내는 문자와 비슷해 사업 경험이 적거나 나이가 많은 소상공

인일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노년층의 경우 온라인 신청에 취약한 부분을 이용,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리접수를 해준다는 명목 아래 금융정보를 캐내려는 전화도 심심치 않게 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스캠자단 어플리케이션 '후후' 이용자들이 신고한 스캠 건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0만 1,892건 증가한 총 556만 7,038건의 스캠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유형 중 '스미싱'이 지난해 동기 대비 92% 증가한 11만 661건을 차지했으며, '재난', '지원금' 등의 키워드가 2분기 스미싱의 심 단어로 새롭게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제도와 관련된 문자는 '1533-0100' 또는 '1533-3300' 으로부터 발송되며, 웹 링크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실제 손실보상금 지급이 개시되면서 관련 사기 문자 및 전화도 증가하고 있다. 스미싱 번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고, 혹시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연락해 지급정지 또는 환급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농협은행 광주본부, 상반기 평가 '전국 최우수'

기업 여신·자산건전성 등 항목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가 올해 상반기 종합업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영업본부에 선정됐다.

25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의 종합업적평가는 금융소비자 보호, 고객 자산관리, 기업 여신, 비이자 사업, 자산 건전성 등 주요 9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매겨진다.

농협은행은 전국에 20개의 영업본부를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본부에 '최우수' 영예가 주어진다.

광주본부가 최우수 본부에 선정된 것은 지난 2012년 평가제 시행 이후 2019년 상반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평가 결과 광주본부는 올해 상반기 기업 대상 여신(대출)액이 3,540억원에 달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다.

이는 코로나19와 국내외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자금난을 호소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경제적 숨통을 트여준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또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8억3,000만원을 출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금융 지원에도 앞장섰다.

신용카드 이용액,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뱅킹, 마이데이터, 퇴직 연금 등에서도 고객 유치 실적이 다른 본부와 비교됐다.

또 광주본부 관내 27곳 영업점 중 무려 17곳이 역시 종합 업적평가에서 1~3등급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등 광주본부가 최우수 본부에 선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가 최근 올해 상반기 종합업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영업본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정되는 데 힘을 보탰다. 김석찬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장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사무소장과 직원들의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발전하고 소통·상생하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진단·시약 및 Molecular 의료기기 등 기자재 전문

생화학
검사

면역혈청학적
검사

혈액학
검사

노화학
검사

분자 진단
검사

www.samiltnc.com

주삼일티엔씨
Samil Treatment & Care Co., Ltd
[61901]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 6번길 16 대표이사 신영태